

새해 스포츠 명품도시로 발돋움

군산시, “스포츠 마케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군산시 스포츠 마케팅은 꽉 찬 활동들이 예약되어 있다.

군산시는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엘리트 및 생활체육은 물론 프로스포츠 유치 등의 마케팅을 통해 내실 있고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스포츠 명품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총 3경기로 치른 프로농구단 KCC 이지스는 3연승을 펼쳐가며 군산 팬들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았으며, 이달 말에는 전국 학생축구대회 중 메이저대회로 인정받고 있는 ‘금석배 학생축구대회’가 개최되어 그 기운을 이어가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또한 올해 7회째를 맞고 있는 군산내민금국제마라톤대회는 화려한 벚꽃향연이 펼쳐질 4월 8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2018 군산내민금철인3종경기는 해마다 늘어나는 참가자와 빛틈없는 대회운영을 인정받아 국제대회

로 격상되어 아름다운 천혜의 도시 군산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투르드 코리아 2018은 올해에도 거점 개막도시로 군산을 선정하여 국내외의 사이를 선수들이 군산을 찾을 예정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훌을 자랑하는 군산 CC에서는 초중고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선수단과 응원단이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종목 중 8개의 종목을 군산의 11개 경기장에

서 진행하게 되어 사전경기 및 팀 전지훈련을 위한 장소로 군산시가 각광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해 군산시는 내실 있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난 9일부터 군산시에 이어진 폭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민·관·군의 인력이 동원되어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의산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접수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의산시(시장 정현율)가 의산지역 영세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의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기계화로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행관리기, 동력살포기 등 중소형 농업기계 100여대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농업기계(500만원 미만)에 대해 구입 가능하며 최대 130만원 까지 지원된다.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며 해당 읍면동 산업체 또는 의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36-4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산=장양원기자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농산물 가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업기계 보급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산업체 또는 의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36-4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산=장양원기자

의산시(시장 정현율)가 오는 10월 익산을 주개최지로 진행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도시미관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의산시는 훠손되거나 파손된 교통안전시설과 그어진 지 오래돼 변색되어 색이 옅어진 차선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 단체들과 협력하여 디딤씨앗 통장과 연계한 1:1매칭 저소득층 자녀 후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이면도로의 정비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생활도로를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도로 내 노면표시, 인조시설 등 도로기능 인지를 위한 시설 정비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보행자와 자동차의 공존을 위한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실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를 통해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과 을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푸드트레일러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

피해 청년 사업자 후속조치 검토

군산시가 지난해 시간여행미을 야간 관광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푸드트레일러 야간관광 명소화사업’이 지난 11월 27일 계약 해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청년 신청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초 푸드트레일러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은 진포해양테마공원 일원에 푸드트레일러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야간 먹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테마의 문화·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군산의 아름다운 밤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에 시에서는 푸드트레일러 운영자 모집과 운영 공연 유치 등은 민간사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사업부지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푸드트레일러 야간관광 명소화사업은 유동인구 김소에 따른 운영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계약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청년신청자들의 피해상황이 파악되면서 시에서는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당사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다.

이에 시는 푸드트레일러 야간관광 명소화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자인 청년들의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푸드트레일러 야간관광 명소화사업 재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성우 시 관광진흥과장은 “푸드트레일러 야간관광 명소화사업과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년들의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민관그 의지에 부합하는 시간여행마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민·관·군 협력 제설작업 펼쳐

지난 9일부터 군산시에 이어진 폭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민·관·군의 인력이 동원되어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자율방재단 및 공무원·군부대 등에서 동원된 1,600여명은 이면도로, 고갯길 등 군산 각지의 통행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옥구읍에 소재한 9585부대 1대대 장병 50여명은 나원동 급행식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변 상가 및 지역주민들은 이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시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준 지표는 ▲진료비 확인 결과 정당 발생 지수 ▲정당 개선 지수 ▲효율적 처리 지수 ▲신속 처리 지수를 산정하여 개인 6명, 단체 1팀을 선정했다.

이에 김정길 팀장은 환자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 민원 처리와 진료비 확인 업무 등 각종 제반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큰 도움을 준 점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받았다.

김정길 팀장은 “환자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의산=장양원기자

의산시, 민·관·군 협력 제설작업 펼쳐

지난 9일부터 군산시에 이어진 폭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민·관·군의 인력이 동원되어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자율방재단 및 공무원·군부대 등에서 동원된 1,600여명은 이면도로, 고갯길 등 군산 각지의 통행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옥구읍에 소재한 9585부대 1대대 장병 50여명은 나원동 급행식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변 상가 및 지역주민들은 이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시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의산시, 전국체전 성공개최 위한 도시미관 정비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오는 10월 익산을 주개최지로 진행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도시미관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훠손되거나 파손된 교통안전시설과 그어진 지 오래돼 변색되어 색이 옅어진 차선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 단체들과 협력하여 디딤씨앗 통장과 연계한 1:1매칭 저소득층 자녀 후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이면도로의 정비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생활도로를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도로 내 노면표시, 인조시설 등 도로기능 인지를 위한 시설 정비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보행자와 자동차의 공존을 위한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실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를 통해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과 을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산=장양원기자

The poster features a girl holding a torch, with the text "Gungsan City Tourism Promotion". It also includes Korean text: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도봉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여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컨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어브 군산 · 새만금!", and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Logos for Dream Hub Gungsan and Gungsan City are also present.